

수출기업의 최근 자금사정에 대한 평가

I. 2/4분기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평가	1
1. 2/4분기 자금사정 평가	1
2. 2/4분기 자금조달사정 평가	2
3.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에 대한 평가	4
II. 자금사정 개선 및 악화 요인	6
1. 개선요인	6
2. 악화요인	8
III. 시사점	10
부록 :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방식	11

작성 : 선임연구원 이재우 (3779-6685)
jaewoolee@koreaexim.go.kr

확인 : 실장 안상술 (3779-6670)
ssahn@koreaexim.go.kr

< 요약 >

□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은 1/4분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중소기업의 개선도는 대기업보다 낮음

- 자금사정 : 전체 기업중 24.2%가 자금사정 개선, 11.8% 악화(1/4분기대비)
 - 중소기업은 21%가 개선되고 14.2%가 악화된
- 원화조달 여건 : 전체 기업중 23.3%가 원화조달 여건 개선, 9.8% 악화(1/4분기대비)
 - 중소기업은 18%가 개선되고 12.1%가 악화된
- 외화조달 여건 : 전체 기업중 14.6%가 외화조달 여건 개선, 9.8% 악화(1/4분기대비)
 - 중소기업 11.8%가 개선되고 10.9%가 악화된
-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: 전체 기업중 25.7%가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판단, 18.6%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판단(1/4분기대비)
 - 중소기업 24.9%가 적극적으로, 18.6%가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판단

□ 자금사정 악화요인으로서는 해외판매 부진(67.9%), 원자재 가격 상승(28.3%)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

- 악화요인으로 해외판매 부진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고, 수출개선이 기업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
-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가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악화요인으로 많이 답함
- 자금사정 개선요인으로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(55%) 및 국내(33.9%) 판매 개선이 대부분 차지

□ 중소기업의 개선도가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

- 외화자금 조달여건의 경우 중소기업의 개선도가 원화자금조달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함
- 다른 산업에 비해 자금사정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섬유류, 플랜트,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

□ 자금여건 악화에 있어 해외판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

-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,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 비금융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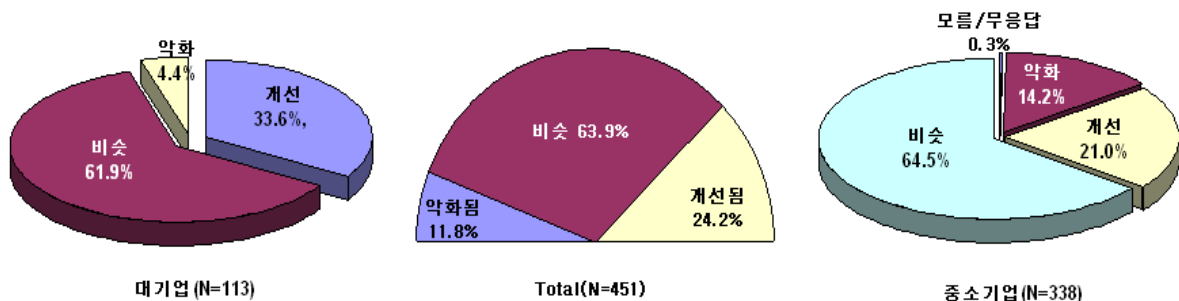
I. 2/4분기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평가

1. 2/4분기 자금사정 평가

□ 수출기업의 2/4분기 자금사정은 1/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

- 24.2%의 기업이 자금사정이 개선되었다고 답한 반면 11.8%의 기업은 전기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
- 대기업의 경우 33.6%의 기업이 개선되었다고 답한 반면, 중소기업은 21%가 개선되고 14.2%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개선도가 낮은 상황
- 이는 전반적인 경기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

< 수출기업의 1/4분기 대비 자금사정 개선여부 판단 >



	사례수	매우 악화됨	악화됨	비슷함	개선됨	매우 개선됨
석유화학	(59)	0.0%	10.2%	71.2%	15.3%	3.4%
철강/비철금속	(66)	0.0%	15.2%	62.1%	22.7%	0.0%
전기·전자	(127)	1.6%	8.7%	62.2%	26.0%	0.8%
기계류	(84)	2.4%	4.8%	70.2%	21.4%	1.2%
자동차	(67)	1.5%	10.4%	61.2%	25.4%	1.5%
선박	(15)	0.0%	13.3%	53.3%	33.3%	0.0%
섬유류	(36)	0.0%	16.7%	61.1%	22.2%	0.0%
플랜트	(7)	0.0%	14.3%	42.9%	42.9%	0.0%
기타	(18)	0.0%	16.7%	50.0%	22.2%	11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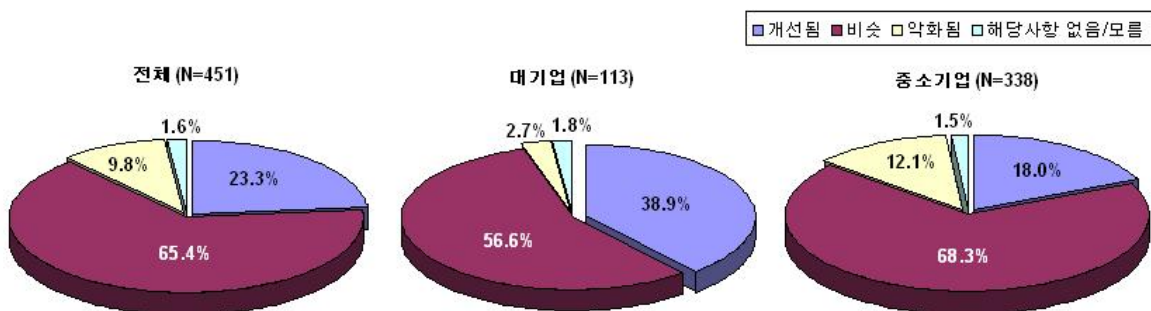
- 산업별로는 섬유류(악화 : 16.7%), 플랜트(악화 : 14.3%), 철강 및 비철금속(악화 : 15.2%) 업체중 자금사정이 1/4분기에 비해 악화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
- 플랜트 업체의 경우 자금사정이 개선된 기업도 42.9%를 차지 산업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임

2. 2/4분기 자금조달사정 평가

□ 수출기업의 원화조달 사정도 1/4분기 대비 개선됨

- 23.3%의 기업이 개선되었다고, 9.8%가 악화되었다고 판단
- 대기업의 경우 38.9%의 기업의 개선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9.8%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임
- 중소기업은 개선되었다고 판단한 기업이 18%인 반면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기업이 12.1%로 개선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
-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

< 수출기업의 1/4분기 대비 원화자금조달 개선여부 판단 >



- 산업별로는 선박(악화 : 20%)과 철강 및 비철금속(악화: 12.1%)에서 원화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선박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달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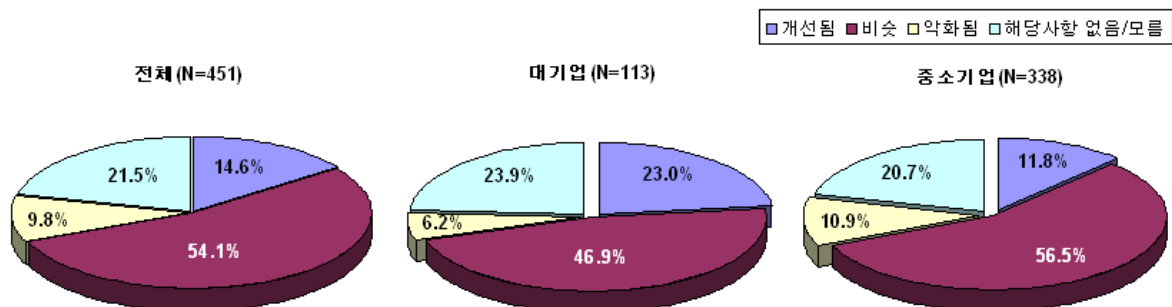
< 수출기업의 1/4분기 대비 원화자금조달 개선여부 판단 :산업별 >

	사례수	매우 악화	악화	비슷	개선	매우 개선	기타
석유화학	(59)	0.0%	5.1%	67.8%	23.7%	0.0%	3.4%
철강/비철금속	(66)	0.0%	12.1%	59.1%	28.8%	0.0%	0.0%
전기전자	(127)	1.6%	5.5%	70.1%	19.7%	1.6%	1.6%
기계류	(84)	1.2%	7.1%	65.5%	21.4%	2.4%	2.4%
자동차	(67)	3.0%	7.5%	62.7%	25.4%	0.0%	1.5%
선박	(15)	0.0%	20.0%	66.7%	13.3%	0.0%	0.0%
섬유류	(36)	0.0%	8.3%	75.0%	16.7%	0.0%	0.0%
플랜트	(7)	0.0%	14.3%	71.4%	14.3%	0.0%	0.0%
기타	(18)	0.0%	22.2%	50.0%	22.2%	5.6%	0.0%

□ 외화조달여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

- 1/4분기보다 개선되었다고 판단한 수출기업의 비중(14.6%)이 악화로 판단한 기업(9.8%)비중을 상회
- 대기기업의 경우 개선되었다고 판단한 기업비중(23%)이 악화로 판단한 기업(6.2%)을 크게 상회하여 국제금융시장 경색 완화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
-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선(11.8%)된 기업과 악화(10.9%)된 기업의 비중이 비슷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
 -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 여건 개선도가 원화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외화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

< 수출기업의 1/4분기 대비 외화자금조달 개선여부 판단 >



- 산업별로는 선박(악화 : 20%)과 플랜트(악화 : 14.3%) 산업에서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악화된 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전기·전자산업은 상대적으로 개선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선박 및 플랜트 산업의 경우 발주물량이 크게 축소되는 등 해당산업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전기·전자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개선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상대적으로 개선된 기업비중이 높음

< 수출기업의 1/4분기 대비 외화자금조달 개선여부 판단 : 산업별 >

	사례수	매우 악화	악화	비슷	개선	매우 개선	기타
석유화학	(59)	0.0%	3.4%	55.9%	13.6%	0.0%	27.1%
철강/비철금속	(66)	0.0%	12.1%	53.0%	15.2%	0.0%	19.7%
전기전자	(127)	1.6%	11.0%	52.0%	17.3%	0.0%	18.1%
기계류	(84)	1.2%	6.0%	56.0%	11.9%	1.2%	23.8%
자동차	(67)	0.0%	3.0%	53.7%	14.9%	1.5%	26.9%
선박	(15)	0.0%	20.0%	53.3%	13.3%	0.0%	13.4%
섬유류	(36)	0.0%	11.1%	58.3%	5.6%	0.0%	25.0%
플랜트	(7)	0.0%	14.3%	42.9%	14.3%	0.0%	28.6%
기타	(18)	0.0%	16.7%	55.6%	16.7%	5.6%	5.6%

3.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에 대한 평가

☐ 2/4분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1/4분기보다 적극적으로 변화

- 전기보다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하는 수출기업의 비중(25.7%)이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업(18.6%)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
- 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기업비중이 중소기업보다 소폭 높게 나왔으나,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기업의 비중은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

-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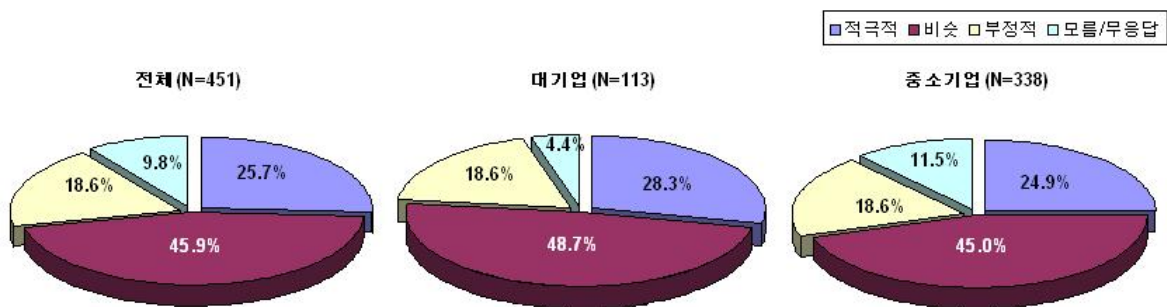
□ 산업별로는 석유화학(적극적 : 27.7%), 철강 및 비철금속(적극적 : 31.8%), 전기·전자(적극적 : 29.1%) 업체에 대한 대출태도의 개선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짐

- 석유화학(부정적 : 20.3%), 선박(부정적 : 20%) 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대출태도가 부정적으로 되었다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

- 석유화학 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변화에 있어 산업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

- 플랜트 산업의 경우 대출태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

< 수출기업의 1/4분기 대비 금융기관 대출태도에 대한 판단 >



	사례수	매우 적극적	적극적	비슷	부정적	매우 부정적	모름/무응답
석유화학	(59)	5.1%	27.1%	39.0%	16.9%	3.4%	8.5%
철강/비철 금속	(66)	4.5%	27.3%	40.9%	12.1%	4.5%	10.6%
전기전자	(127)	6.3%	22.8%	42.5%	15.0%	3.1%	10.2%
기계류	(84)	4.8%	16.7%	47.6%	19.0%	1.2%	10.7%
자동차	(67)	3.0%	20.9%	50.7%	11.9%	3.0%	10.4%
선박	(15)	6.7%	13.3%	53.3%	20.0%	0.0%	6.7%
섬유류	(36)	0.0%	22.2%	47.2%	13.9%	5.6%	11.1%
플랜트	(7)	0.0%	14.3%	71.4%	14.3%	0.0%	0.0%
기타	(18)	5.6%	11.1%	55.6%	22.2%	5.6%	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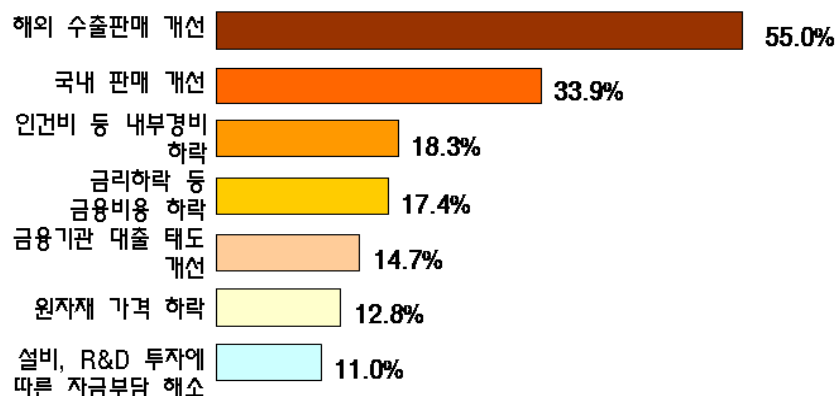
II. 자금사정 개선 및 악화 요인

1. 개선요인

- ☐ 자금사정이 개선된 원인으로 수출기업은 해외 및 국내 판매 개선을 뽑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자금사정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
- 인건비 등 내부경비, 금리하락을 원인으로 답한 기업은 20% 미만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
-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개선도 14.7%를 기록하여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< 자금사정 개선 수출기업의 개선원인 분포 >

자금 사정 개선 이유 (N=109)



- ☐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판매 개선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, 대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개선이 중소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
- 중소기업은 수출경기보다 국내경기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
- 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태도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개선이 대기업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이는 것임

□ 산업별로는 플랜트, 전기전자, 기계류 산업의 경우 수출개선에 따른 자금사정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

- 철강 및 비철금속, 섬유류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개선보다는 국내판매 개선에 따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
- 섬유류 산업의 경우 인건비 등 내부경비 하락에 따른 자금사정 개선이 50%를 차지하였으며, 석유화학 산업도 36.4%의 기업이 경비하락을 원인으로 답함
-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개선에 따른 개선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 자금사정 개선 수출기업의 개선원인 분포 : 규모별, 산업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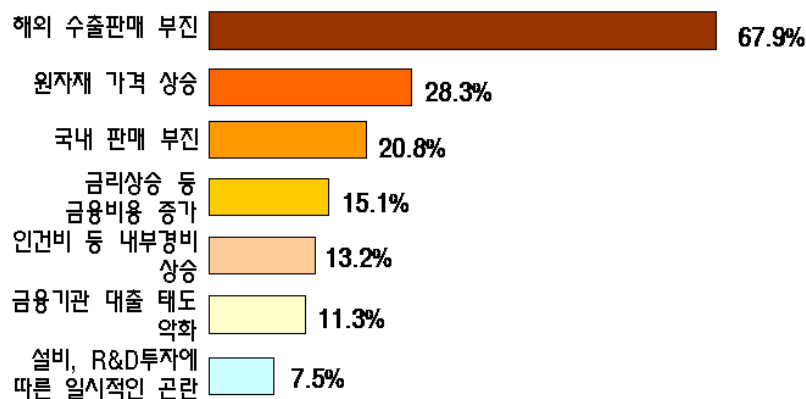
		사 례 수	해외 수출 개선	국내 판매 개선	원자재 가격 하락	내부 경비 감소	금융 비용 감소	금융 기관 태도 개선
규 모 별	대기업	(38)	55.3%	28.9%	7.9%	18.4%	13.2%	23.7%
	중소기업	(71)	54.9%	36.6%	15.5%	18.3%	19.7%	9.9%
산 업 별	석유화학	(11)	63.6%	18.2%	18.2%	36.4%	9.1%	27.3%
	철강/ 비철금속	(15)	26.7%	40.0%	20.0%	13.3%	6.7%	20.0%
	전기전자	(34)	64.7%	35.3%	5.9%	17.6%	20.6%	11.8%
	기계류	(19)	63.2%	42.1%	21.1%	10.5%	10.5%	10.5%
	자동차	(18)	50.0%	16.7%	11.1%	5.6%	27.8%	27.8%
	선박	(5)	60.0%	40.0%	20.0%	0.0%	0.0%	0.0%
	섬유류	(8)	25.0%	37.5%	25.0%	50.0%	25.0%	0.0%
	플랜트	(3)	66.7%	100.0%	0.0%	33.3%	0.0%	0.0%
	기타	(6)	50.0%	16.7%	0.0%	16.7%	33.3%	33.3%

2. 악화요인

- 자금사정의 악화요인으로는 해외판매 부진(67.9%), 원자재 가격 상승(28.3%)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
 - 개선요인으로 해외판매 개선이, 악화요인으로 해외판매 부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고, 기업별로 수출개선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
 - 이외에 국내판매 부진(20.8%)과 금리상승(15.1%)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

< 자금사정 악화 수출기업의 악화원인 분포 >

자금 사정 악화 이유 (N=53)



- 자금사정이 악화된 대기업은 대부분 해외판매 부진(80%)을 원인으로 답하였으며, 중소기업은 해외판매 부진 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악화원인으로 답함
 -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비용상승에 따른 단가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시키기 어려워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임
- 산업별로는 대부분 해외판매 부진을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답하고 있으며, 기계류와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이 국내판매 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를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답함

- 석유류 산업은 악화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높게 답하고 있어 최근 원유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
-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 등 내부경비 상승도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답하고 있으며, 철강 및 비철금속 기업은 금리상승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
- 선박과 플랜트는 금융비용 상승을 악화의 주요요인으로 답하고 있으나 사례가 적어 산업전체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

< 자금사정 악화 수출기업의 악화원인 분포 : 규모별, 산업별 >

		사 례 수	해외 수출 악화	국내 판매 부진	원자재 가격 상승	내부 경비 증가	금융 비용 증가	금융 기관 태도 악화
규 모 별	대기업	(5)	80.0%	0.0%	20.0%	0.0%	20.0%	20.0%
	중소 기업	(48)	66.7%	22.9%	29.2%	14.6%	14.6%	10.4%
산 업 별	석유 화학	(6)	66.7%	0.0%	33.3%	16.7%	0.0%	0.0%
	철강/ 비철금속	(10)	70.0%	30.0%	20.0%	0.0%	40.0%	20.0%
	전기 전자	(13)	76.9%	23.1%	38.5%	7.7%	7.7%	0.0%
	기계류	(6)	100.0%	33.3%	16.7%	0.0%	16.7%	0.0%
	자동차	(8)	50.0%	25.0%	25.0%	50.0%	0.0%	12.5%
	선박	(2)	50.0%	0.0%	50.0%	0.0%	50.0%	0.0%
	석유류	(6)	50.0%	0.0%	66.7%	0.0%	0.0%	33.3%
	플랜트	(1)	0.0%	100.0%	0.0%	0.0%	100.0%	0.0%
	기타	(3)	66.7%	0.0%	0.0%	33.3%	0.0%	33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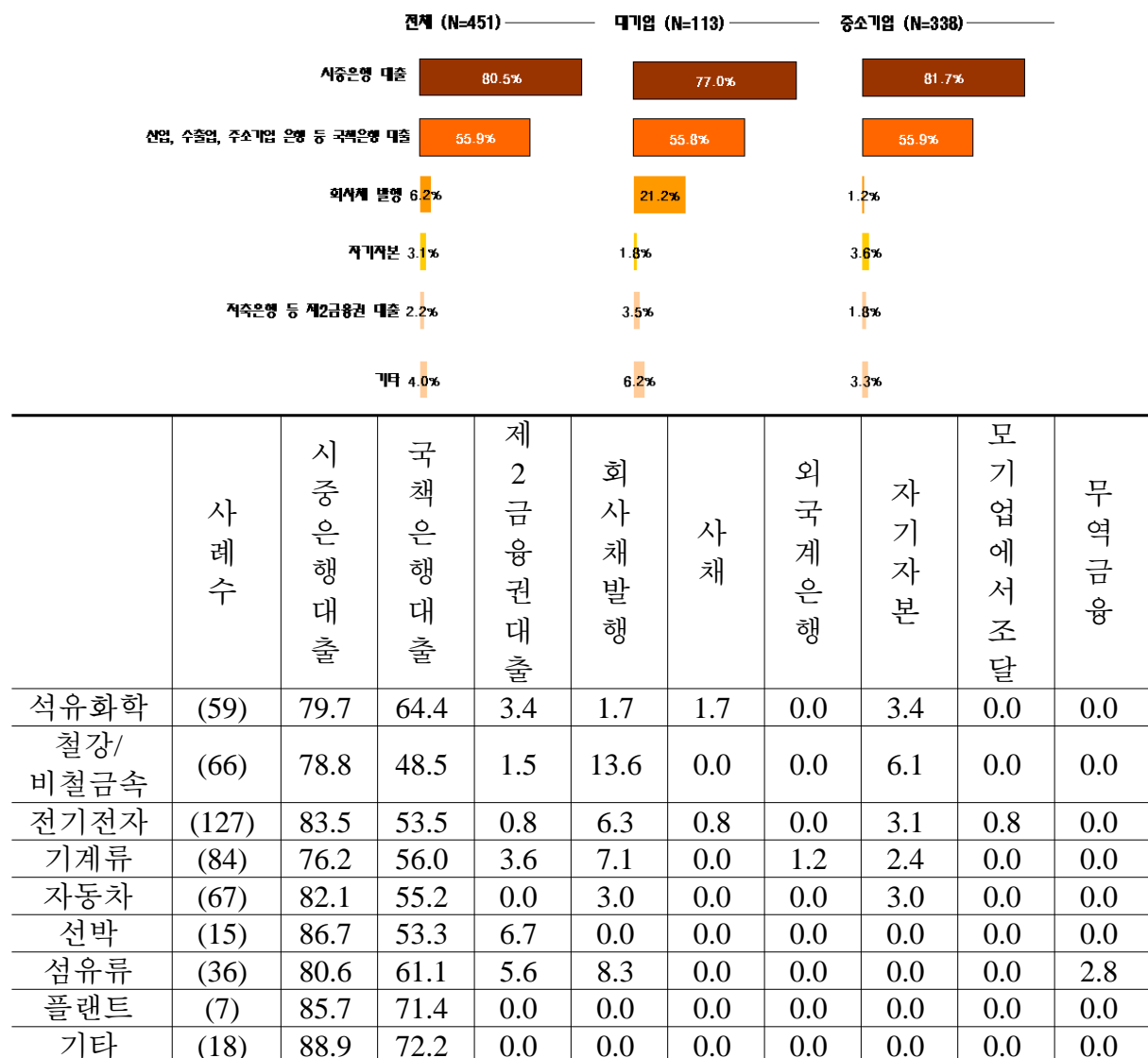
III. 시사점

- 수출기업의 2/4분기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1/4분기보다 더 개선되었으나, 중소기업의 개선도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
 - 산업별로는 섬유류, 플랜트,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자금사정 개선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
- 자금조달사정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속도는 향후에도 대기업에 비해 더딜 것으로 판단됨
 - 기업규모간 원화자금 조달여건 개선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원화자금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
 - 외화자금 조달여건의 경우 중소기업의 개선도가 원화자금조달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함
 -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,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임
- 자금여건 개선 및 악화에 있어 해외판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
 -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, 기업의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비금융 수출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

부록 : 수출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방식

- 수출기업의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시중은행(80.5%) 및 국책은행(55.9%)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음
-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21.2%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산업별로는 플랜트와 섬유산업이 국책은행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회사채 발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분표 >



참고 : 설문조사 개요

□ 설문기간 : 2009년 6월 1일 ~ 6월 12일

□ 설문회수 기업수 : 총 451개 기업

○ 대기업 113개, 중소기업 338개